



# 태양찬가, 조국찬가는 영원히 높이 올려퍼지리

## 총련 금강산가극단 명명 40돐을 맞으며

풍치수려한 주제조국의 수도 평양에 아름다운 금강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다. 5대 혁명가극의 하나로 세상에 유명한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가 평양대극장에서 막을 올리겠다는 소식은 사람들을 마냥 흥분시키고 있다.

높이 솟은 봉이들도 구슬같은 맑은 물도 김일성원수님의 은덕을 노래하네 아 노래하자 금강산아 노래하자 은혜로운 인민의 태양

특색있고 판공있는 해외교포예술단체로 명망높은 총련 금강산가극단의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공연인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는 자못 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재일동포들은 비록 조국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두런은 정을 안고 사는 하나의 혈육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량없는 은정속에 40년전 어버이수령님을 모시였던 뜻깊은 국장무대에 다시 선 총련예술인들의 감회는 참으로 류다르다. 애국위업의 나팔소리 같은 거리의 사랑을 받고있는 이역의 아들딸들은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와 더불어 주제적해외교포예술의 빛나는 력사가 아로 새겨지던 못 잊을 나날들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는지 생각해보아야 하겠다고 신중헌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그날 저녁 평양대극장에서 공연하는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를 보아주시던 수령님께서서는 혼자 말씀처럼 이 가극을 재일동포들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었다.

그이의 깊은 뜻을 알수 없었던 한 일군이 모든 재일동포들을 조국에 데려다 보여 주지 못하는것이 안타깝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로부터 며칠후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이번에 총련예술단동무들과 재일동포들에게 큰 선물을 마련해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아무리 생각해보아야 그들에게 줄 가장 훌륭한 선물은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이라고, 이국땅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는 동포들에게 《금강산의 노래》를 안겨주고자 함이 말씀하시었다.

이런 가슴뜨거운 사연을 알게 된 총련예술인들은 뜨거웠던 가슴을 삼키며 수령님의 크나큰 신념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 줄 아는 맹세를 다지였다. 가극집수는 빠른 속도로 진척되어 시작하지 불과 한달만에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를 무대에 올릴수 있게 되었다.

주제 63(1974)년 6월 27일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마니현 현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는 길로 평양대극장에 나오시었다. 총련의 예술인들이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감명깊게 형성한 가극공연을 보려고 오신데 반갑게 수령님께서는 140여명이나 되는 전체 성원들에게 일일이 축배잔을 찹어주시며 따뜻한 사랑을 부어주시었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일본으로 돌아 가면 금강산가극단을 꾸리고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를 공연하여 총련과 《민간동포들, 일본에 오는 남조선동포들과 일본인민들에게 보여줄데 대하여 당부하시었다. 단란한 가정적분위기에 시간은 피그나 흘러 수령님께서 떠나실 때가 되었다. 울먹이던 동포예술인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를 배워가자는 약속을 하고 말씀하시었다.

순간 모두가 감격 높았다. 어느모로 보나 미흡한 우리가 세계가극에 걸맞고 경이적인 《희바다》시혁명가극을 어떻게... 《수령님... 건강하십시오!》 《...부디... 부디... 건강하십시오!》 《고맙소... 고맙소... 동무들도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수령님의 음성도 무척 갈렷었다. 목메어 흐르는 총련예술인들이 어루만져주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달래시듯 말씀하시었다.

### 위대한 스승의 손길 아래

헤마다 평명성절과 태양절 등 뜻깊은 제기들마다 총련의 예술인들이 어김없이 찾아온다.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열렬한 조국애, 민족의 향취가 뜨겁게 흘러넘치는 그들의 공연은 조국인민들의 절찬을 받곤 한다. 극장이 떠나갈듯 한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을 때마다 그들은 총련의 예술을 세계해외교포예술의 본보기로 빛내이시기 위하여 기울인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들에 대한 생각으로 눈물을 적시곤 한다. 총련예술인들이 잊지 못할 추억하는 제간동지들이었다. 그들의 하나이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인 주제 81(1992)년 4월 어느날이었다. 조국을 방문한 재일조선인예술단 성원들을 몸가차며 불러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예술단의 특징 있는 배우들과 종무들을 일일이 찍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총련에 인재들이 많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래를 잘 부릅니다. ... 조국에 있는 예술인들보다 노래를 더 잘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구. 아까는 2번에 한번씩 오기로 했는데... 그럼 그때 오기로 하자구! ... 그때 오기로 하자구! ... 자, 이젠 그쳐! ... 그치라는데...》

혈육의 정을 초월하는 가슴뜨거운 광경이 펼쳐지는 속에 수도의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그날의 격정과 행복을 한 동포시인은 격조높은 시구절에 담았다.

너무나도 꿈만 같은 이별의 이 감격 이 사랑을 대대손손 길이길이 노래하렵니다

재일동포들은 절세위인의 품속에서 금강의 신념신기가 되어 돌아온 자기의 아들딸들을 뜨겁게 맞이하였다. 동포사회의 열렬한 축하속에 그해 8월 29일 재일조선중앙예술단을 금강산가극단으로 명명하는 모임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며칠후에는 공화국장전 26돐을 경축하여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공연의 막을 열었다. 가극은 심오한 사상예술성과 빈틈없이 짜여진 무대조화로 하여 관람객들을 커다란 감격과 흥분에 휩싸이게 하였다. 불과 3일동안에만도 총련과 《민간》산하 동포들은 물론 남조선동포들과 일본인민들, 일본에 체류하고있던 외국인들 등 1만 1,000여명이 공연을 관람하였었다. 온 일본땅이 《금강산의 노래》를 듣고 싶어하였다. 위대한 재일동포들의 가극마다에 공화국의 해외공민들 더없는 영예와 자부심, 민족의 긍지와 애국의 마음을 깊이 심어주었으며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할 투쟁의지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금강산가극단의 결성! 이것은 주제적해외교포예술의 자랑찬 새시대를 알리는 장엄한 서곡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에도 총련의 예술인들이 조국에 올 때마다 그들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뜨거운 어버이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어버이사령님의 따뜻한 손길아래 총련의 예술인들은 천하절속 금강산의 1만 2,000봉우리에 활짝 피어난 목련꽃처럼 주제적해외교포예술의 아름다운 화원에 뿌리내려 애국충정의 질은 향기를 풍기게 되었다.

부름입니다. ... 조국에 있는 예술인들보다 노래를 더 잘 부릅니다.》

### 미래의 주인공들이라 하시며

주제 37(1948)년 11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민청(당시) 제3차대회에 참가한 청년대표들을 만나시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한 모범청년들의 소명을 로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크나큰 격정속에 가슴을 들먹이는 그들의 자애로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무들은 미래의 조선의 주인공들이라고, 우리 청년들은 모두가 조국건설을 위하여 몸바쳐써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리고는 항일투쟁시기에 우리 청년들은 우리 나라 청년동맹의 창건지이며 조선청년노동의 위대한 스승이시라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우리 장군님의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품에 안겨 활짝 피지 않는 꽃이 없고 그 품속에 꽃피는 인생은 사들고 지는 법이 없다. 총련예술인들에게 있어서 어버이사령님은 주제적해외교포예술인의 참다운 영예를 안겨주시던 고마운 은인이시라면 위대한 장군님은 그들에게 주체의 예술관과 창조 의 묘수를 하나하나 깨우쳐주시던 위대한 스승이시었다.

사실 그대 우리 장군님께서 그토록 높이 평가해 주신 재일조선인예술단의 음악무용구성시 《수령님의 환하신 웃음속에 우리 행복 꽃피니다》로 말하면 총련예술인들이 위대한 스승앞에서 자기들의 창조적능력과 기량을 감일만한 심의공연이나 같았다.

몇달전 그들이 준비한 공연을 축하물로 보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형식주의를 배척하시고

창의 예술인들에게는 자기들이 나아가길 길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따라잡고 공연하는 사람들보다 성수가 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총련은 예술에서 조국의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따없이 일깨워주시었다. 그리고 자기것만 좋다고 내세우는 안된다고 하시며 그들의 머리도 환히 피우주시었다.

《주체예술의 거대한 생활력, 아름답고 상한 우리 민족예술의 향취를 한껏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가극단이 최고입니다.》...

동포들의 심정을 대변하여 총련일군은 총련예술인들에게는 자기들이 나아가길 길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따라잡고 공연하는 사람들보다 성수가 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총련은 예술에서 조국의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따없이 일깨워주시었다. 그리고 자기것만 좋다고 내세우는 안된다고 하시며 그들의 머리도 환히 피우주시었다.

1970년대에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를 받아들였을 때와 같은 드높은 신심과 열정이 가극단안에 차고넘치었다. 조국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한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총련의 개성이 살아숨쉬는 새로운 형식의 예술공연을 준비하였다. 이런 사연이 깃든 공연이었다.

극장에 나오시던 공연의 전 과정을 주의 깊게 보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형식도 총련의 특성에 맞고 내용이 좋고, 1%의 결함도 없는 단검짜리 공연이라고 하시며 매우 만족해하시었다.

총련예술인들의 가슴속에는 뜨거운것이 가득 차고있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늙는 법이 없고 내뺀 자식의 성장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눈빛은 한없이 뜨겁다. 정녕 그이의 높은 평가에는 비할래면 이국땅에서 수령의 노래, 조국의 노래를 목청껏 부르는 총련예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힘과 용기를 주시려는 자애로운 어버이, 위대한 스승의 사랑깊은 응시가 이어졌다.

가오 《우리는 하나》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어느날 조국을 방문한 총련의 예술인들을 만나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조국에서 이번애 《우리는 하나》라는 좋은 노래를 만들었다고 알려주시었다. 제목만 들 어봐도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조국통일열선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특이진군가 분명하였다. 노래를 한시바베 들 어보고싶어하는 그들의 열망을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노래형상이 선명되던 총련에 재일민중 보내주겠다고 정경계 말씀하시었다. 정말 마디마디 총련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배부르 느껴지는 말씀이었다.

주제 91(2002)년 2월말 어느날 재일조선인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 《애국의 꽃》을 보아주시던 때였다. 이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공연전반내용이 좋고 형식도 생동하다고, 대 작품들의 사상성이 강하고

### 크나큰 믿음, 뜨거운 사랑은 정

주제 84(1995)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청년동맹일군들을 만나시었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청년동맹에 어버이사령님의 존함을 모시도록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 우 리 당 의 큰 자 랑

주제 101(2012)년 8월 어느날 청년절경축대회 참가자들은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았다. 자기들을 사랑의 한복에 안아 기념사진을 찍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청년대표들은 목청껏 찬사를 올렸고 그이를 경배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청년동맹을 강화하란 무서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오늘 청년들의 저 모습은 영화를 촬영한

다 특성이 있다고, 민족적색채가 선명하고 동화되지 않는 재일동포들의 민족적기상을 잘 보여주었다고 거듭 거듭 칭찬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그동안 총련에서 재일동포들의 생활감정과 취미에 맞는 주제적이고 애국적인 예술내용과 형식을 탐구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했것이 확연하게 알린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정녕 그이의 믿음과 기대는 끝이 없었다. 절세위인의 이토록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금강산가극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동포들의 가슴속에 애국의 불씨를 심어주고 동포사회의 민족성을 고수하며 동포들의 민족자주정신과 문화적 소양을 키워주는 보람찬 공연활동을 즐기 차게 벌여왔다. 참기 어려운 시련의 나날에도 그들은 애국의 공연길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공연은 어디서나 열렬한 절찬을 받았다. 《주체예술의 거대한 생활력, 아름답고 상한 우리 민족예술의 향취를 한껏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가극단이 최고입니다.》...

동포들의 심정을 대변하여 총련일군은 총련예술인들에게는 자기들이 나아가길 길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따라잡고 공연하는 사람들보다 성수가 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총련은 예술에서 조국의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따없이 일깨워주시었다.

《주체예술의 거대한 생활력, 아름답고 상한 우리 민족예술의 향취를 한껏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가극단이 최고입니다.》...

동포들의 심정을 대변하여 총련일군은 총련예술인들에게는 자기들이 나아가길 길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따라잡고 공연하는 사람들보다 성수가 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총련은 예술에서 조국의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따없이 일깨워주시었다.

1970년대에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를 받아들였을 때와 같은 드높은 신심과 열정이 가극단안에 차고넘치었다. 조국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한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총련의 개성이 살아숨쉬는 새로운 형식의 예술공연을 준비하였다. 이런 사연이 깃든 공연이었다.

극장에 나오시던 공연의 전 과정을 주의 깊게 보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형식도 총련의 특성에 맞고 내용이 좋고, 1%의 결함도 없는 단검짜리 공연이라고 하시며 매우 만족해하시었다.

총련예술인들의 가슴속에는 뜨거운것이 가득 차고있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늙는 법이 없고 내뺀 자식의 성장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눈빛은 한없이 뜨겁다. 정녕 그이의 높은 평가에는 비할래면 이국땅에서 수령의 노래, 조국의 노래를 목청껏 부르는 총련예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힘과 용기를 주시려는 자애로운 어버이, 위대한 스승의 사랑깊은 응시가 이어졌다.

가오 《우리는 하나》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어느날 조국을 방문한 총련의 예술인들을 만나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조국에서 이번애 《우리는 하나》라는 좋은 노래를 만들었다고 알려주시었다. 제목만 들 어봐도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조국통일열선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특이진군가 분명하였다. 노래를 한시바베 들 어보고싶어하는 그들의 열망을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노래형상이 선명되던 총련에 재일민중 보내주겠다고 정경계 말씀하시었다. 정말 마디마디 총련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배부르 느껴지는 말씀이었다.

주제 91(2002)년 2월말 어느날 재일조선인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 《애국의 꽃》을 보아주시던 때였다. 이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공연전반내용이 좋고 형식도 생동하다고, 대 작품들의 사상성이 강하고

### 크나큰 믿음, 뜨거운 사랑은 정

주제 84(1995)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청년동맹일군들을 만나시었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청년동맹에 어버이사령님의 존함을 모시도록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 우 리 당 의 큰 자 랑

주제 101(2012)년 8월 어느날 청년절경축대회 참가자들은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았다. 자기들을 사랑의 한복에 안아 기념사진을 찍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청년대표들은 목청껏 찬사를 올렸고 그이를 경배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청년동맹을 강화하란 무서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오늘 청년들의 저 모습은 영화를 촬영한

### 가 장 훌륭한 선 물

지금으로부터 40년전인 주제 63(1974)년 4월 초 어느날 한적의 대형화객건이 동해의 푸른 물결을 헤가르고있었다. 어버이사령님의 탄생 62돐을 맞으며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감사와 축원의 마음을 소중히 안고 가는 재일조선인예술단 성원들을 태운 《간경봉》호였다. 조국땅은 아직 저 멀리 아득한 수평선 너머에 있었건만 흥분된 마음들은 벌써부터 키틀음을 하고있었다.

10월이면 장안이 변한다는 말이 있지 만 바다가 변한다는 말은 없다. 하지만 이 동해에서는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가. 원천의 그 세월 류량의 피눈물을 뿌려낸 설을 맞고 수만달은 이 바다에 오늘을 끝없는 행복의 눈물을 쏟으며 그러은 조국으로 우리가 간다. 이런 생각으로 모두의 가슴가슴은 바다처럼 설레이고있었다.

조국의 대안이 가까워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기습을 떠나 너울너울 마주 달려오는 파꽃배, 부두를 뚫 매운 환영의 인파, 땅과 바다가 온통 꽃결이었다. 동포예술인들을 반겨맞을 하늘도 친절하게 오르 기를 소원하는 이 웅장화려한 무대를 자기 들에게 먼저 내어주시던 수령님의 사랑에 이 역의 예술인들은 감격의 눈물짓었다.

조국에서의 하루하루가 순간이런듯 흘러 가고 마침내 총련의 예술인들이 고향에도 바라보고바라본 영광의 시각이 왔다. 주제 63(1974)년 4월 14일 어버이사령님을 모시고 재일조선인예술단은 공연의 첫발을 울렸다. 공연장에는 준공을 선포한지 얼마 안되는 인민문화궁전이었다. 조국의 예술인들도 한시바베 오르 기를 소원하는 이 웅장화려한 무대를 자기 들에게 먼저 내어주시던 수령님의 사랑에 이 역의 예술인들은 감격의 눈물짓었다.

찬이슬 내리는 길거리에서 노래를 팔던 무대없는 예술인, 이것이 어제날 우리들의 비참한 신세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있는가. 어느분앞에서 행복의 노래를 부르고있는가.

생각할수록 끓어오르는 격정으로 동포 예술인들의 가슴가슴은 세계에 방망이질하고 있었다. 그들이 무대에 올린 모든 종무들에게는 오늘날의 이 영광, 이 기쁨을 마련해주신 어버이사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한껏 흘러넘치고있었다.

어버이사령님께서서는 공연종목이 바뀔 때마다 거듭거듭 치하의 말씀을 해주시었다. 한 번씩 축하가자 명만다다 끊어치는 물결에 피어오르는 흰구름마냥 은은한 서정을 담아 가요 《꽃없는 이 행복 노래부르네》를 불렀을 때였다. 《잘하오! 아주 훌륭하게 부릅니다!》 재일민중 박수를 쳐주시며 재향해주신분은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두번째 노래는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였다. 사랑의

### 교육원 조비와 장학금을 보내 주신

어버이사령님에 대한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담아 노래를 부르던 가수는 그란 부탄처럼오는 감격을 누르지 못하고 어깨를 들먹이기 시작하였다. 물뿌린듯 고요해진 장내에는 노래대신 가수의 흐느 낱소리와 떨리는듯 한 관현악을림뿐...

말없이 눈가로 손수건을 가져가시는 수령님을 우러르며 관람자들도 출연자들도 씩씩웃는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었다.

이날 어버이사령님께서서는 재일조선인 예술단의 공연은 조국에 대한 충실성으로 총 만되어있고 예술적기교의 측면에서도 완전 무결한 공연이라고 높이 칭찬하시었다. 그이의 파분한 평가에 모두가 몸들바를 몰라하였다. 대견하게 그들모두를 둘러보시 던 그이께서는 총련예술인들이 조국에 처음 왔는데 공연한 하지 말고 조국의 예술을 배워가라는것이 어떤가라고 다정히 물어주시었다. 저저마다 눈물을 흘리며 눈부시게 말한 하는 조국의 주제예술을 배워가고싶은 자기들의 소원을 아뢰었다. 그러자 수령님께서서는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며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를 배워가자는 약속을 하고 말씀하시었다.

순간 모두가 감격 높았다. 어느모로 보나 미흡한 우리가 세계가극에 걸맞고 경이적인 《희바다》시혁명가극을 어떻게... 《수령님... 건강하십시오!》 《...부디... 부디... 건강하십시오!》 《고맙소... 고맙소... 동무들도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수령님의 음성도 무척 갈렷었다. 목메어 흐르는 총련예술인들이 어루만져주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달래시듯 말씀하시었다.

### 위대한 스승의 손길 아래

헤마다 평명성절과 태양절 등 뜻깊은 제기들마다 총련의 예술인들이 어김없이 찾아온다.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열렬한 조국애, 민족의 향취가 뜨겁게 흘러넘치는 그들의 공연은 조국인민들의 절찬을 받곤 한다. 극장이 떠나갈듯 한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을 때마다 그들은 총련의 예술을 세계해외교포예술의 본보기로 빛내이시기 위하여 기울인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들에 대한 생각으로 눈물을 적시곤 한다. 총련예술인들이 잊지 못할 추억하는 제간동지들이었다. 그들의 하나이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인 주제 81(1992)년 4월 어느날이었다. 조국을 방문한 재일조선인예술단 성원들을 몸가차며 불러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예술단의 특징 있는 배우들과 종무들을 일일이 찍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총련에 인재들이 많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래를 잘 부릅니다. ... 조국에 있는 예술인들보다 노래를 더 잘 부릅니다.》

## 당과 국가책임일군들 각지 청년 학생들과 함께 청년절을 뜻 깊게 경축

【평양 8월 28일말 조선중앙통신】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곧바로 나아가는 선군위업적자들의 애국충정의 열의와 역센 기상이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각지 청년학생들이 청년절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해주시고 꽃피우신 조선청년들의 혁명적명절을 경축하는 환희와 격정

으로 청춘들의 가슴마다를 끓이게 하였다.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28일 각지 청년학생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였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부동지, 최봉태동지, 박도훈동지, 양희섭동지, 강석주동지, 김정해동지, 박범기동지, 오수용동지, 모두 철동지와 중앙과 지방의 일군들이 김일성종합대학, 대안중

학교연합기업소, 만수대학작사, 평양전속종합대학,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만경대구역 만경대남세전분공장, 평양기공식품공장,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사동구역 장천내전분업동농장,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비롯한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에서 나가 청년학생들을 축하해주었다. 그들은 청년학생들과 함께

배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과 태양상,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 벽화, 혁명사적비 등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혁명사적관과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소개실, 생산현장, 교실 등을 돌아보시던 그들은 영웅적명도업적과 더불어 빛나게 아로 새겨진 전세대 청년들의 영웅적 위훈과 값있는 헌신을 감회깊이 되새기였다.

청년학생들은 기쁨과 광만이 넘쳐 노래도 부르고 흥겨운 춤판도 벌였으며 체육회회오락경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들을 진행하면서 명절을 즐겼다.

피끓는 청춘의 열정과 기백이 약동하는 노래들과 축구, 배구, 바둑잡기, 발목매고달리기 등 여러 종류의 경기들을 통하여 그들은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온 나라에 혁명열, 투쟁열을 북돋아주는 선군시대 청년들의 투쟁모습을 잘 보여 주었다.

우리 당의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에 떠받들려 강성조국의 보람찬 건설자, 당당한 주인공으로 청춘시절을 빛내여가는 청년학생들의 날마다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명절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 언제나 당을 따라 미래어로 전진하는 힘찬 발걸음

우리 조선청년들의 혁명적정신 청년절,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최후승리를 향한 총공격을 과감히 벌여나가고있는 혁명적시기에 청년절을 맞은 이 나라 청년전위들의 심정은 참으로 류다르다.

얼마나 많은 이 나라 청년들이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우리 조국땅에 영원할 자랑스러운 위훈을 아로 새기었던가.

독창적인 청년운동사상을 제시하시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헌정은 그리움속에 우리 청년들과 인민들은 주체의 청년운동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신 탁월한 청년중시정치를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며 청년들의 힘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올것입니다.》

청년들은 나라와 민족의 꽃이며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이고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이다. 그러나 청년들이라고 하여 다 민족의 꽃으로, 사회의 활력있는 부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위대한 수령을 모셔야 청년이 아름다와지고 혁명의 전위로서의 청년들의 역할도 높여지게 된다.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청년사업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시였다.

세상에 청년사업처럼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은 없을것이라고, 만일 나에게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수 있는 행운이 오고 직업을 새롭게 선택할수 있는 권리가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김일시절처럼 단연코 청년사업에 몸을 잠글것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깊은 말씀을 떠올리는 우리의 심중에 격정이 불꽃마냥 차오른다.

주제 16 (1927)년 8월 2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형의 혁명가들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시여 감질물라 해메이던 불우한 식민지청년들을 진정한 전위조직에 묶어내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정스러운 애국투쟁에서 누리에 불을 붙여주고 철쇄를 마스느 마처가 되게 하시였다.

공청에서 육성된 선봉적인 청년투사들로 항일유격대가 창건되고 조국청년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항일무장투쟁이 전개되였으며 그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조국이 해방되였으니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항일혁명의 전기간 조선의 열혈청년들을 혁명의 전위투사들로 키우시며 주체의 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마련하신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어찌 적은 지면으로야 다 전할수 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중시사상은 새 조국건설시기에 이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사회주의건설시기에도 줄기차게 이어졌다. 그 손길따라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들마다에서 우리 청년들은 언제나 수령철사옹위의 영웅서사시를 아로 새길수 있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조선청년운동의 고귀한 전통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아래 빛나게 계승되고 더욱 활짝 꽃피었다.

청년동맹에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을 모시도록 하시고 《청년들을 사랑하라!》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여 청년동맹과 청년들에게 최대의 영광, 끝없는 믿음과 사랑을 안겨 주시였으며 주체의 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신 우리 장군님.

지금도 잊을수 없다.

조선청년운동의 시원이 열린 뜻깊은 날을 길이 빛내이며 주체적청년운동의 고귀한 전통을 만대에 이어 주시여 위하여 청년절을 제정해주시던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조국과 혁명앞에 증대한 과업이 나설 때마다 우리 청년들을 굳게 묶고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의 맨 앞장에 주력으로 내세워주시였으며 청년들이 자기의 무궁무진한 힘과 슬기를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이끌어 주시던 영도의 손길을,

불후의 고전적로작 《현시대와 청년들의 의무》,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영도업적을 빛내여나가지》,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자》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우리 청년운동의 앞길을 활짝 밝혀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어찌 그뿐이랴.

자신의 동상은 세우지 못하게 하시면서도 청년들에 대한 기념탑을 잘 세워주시며 마음쓰신분도, 우리 청년들을 금방씩 울려놓아도 아가울것이었다고 하시며 모든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주신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의 세련된 영도와 국권한 보살핌으로 하여 우리 청년운동은 변화되는 정세속에서도 영광찬 승리의 역사를 이어올수

있었으며 우리 청년들은 온갖 시련과 난관을 다 이겨내며 성스러운 한길, 애국의 한길을 뜻뜻이 걸어올수 있었다.

년대와 년대를 이어, 세기의 언덕을 넘어 자랑스러운 전통을 아로새겨온 우리의 청년운동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영도아래 오늘 최상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나의 이야기가 돌이켜진다.

두해전 초봄이었다. 그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에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떨칠만큼이라도 건드린자들은 이 땅, 이 하늘에 살아숨쉬 곳 없게 될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자기 수령, 자기 제도를 결사옹위하기 위해 떨쳐나선 우리 천만군민의 무자비한 성진앞에 특대형도발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라고 한 폭탄같은 선언에 화답하여 피끓는 청년들이 인민군대입대, 부대를 탄원해나갔다.

다른 나라들같은 인일과 향락, 부패와 타락에 빠져 사회의 우환을 받도록 조국과 인민을 지키는 길에 주저없이 나섰다. 세상에 없는 청년중시사상, 청년중시정치가 이런 훌륭한 청년들의 대부대를 키운것이다.

그로부터 며칠후 한 일군을 부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앞으로 청년절을 크게 쇄도할 때대하여 이야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청년들을 중시하여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청년들은 우리 당의 후비대, 혁명의 계

승자들이며 강성국가건설의 돌격대, 김일성민족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주인공들이다. ...

정세가 전쟁경계로 치닫고있던 그때 승리를 띠고나서며 경애하는 그의 마음은 이렇듯 벌써 8월에 달리고계시였다.

청년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는것은 당과 혁명의 존망, 나라의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시며 청년중시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

반만년의 우리 나라 역사에 청년은 어느때나 있었고 이름을 날린 청년들도 있었지만 오늘의 시대처럼 모든 청년들이 당의 청년전위라는 고귀한 영예를 지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훈떨치는 보람찬 청춘의 시대는 일찌기 없었다.

하기에 뜻깊은 청년절을 맞은 지금 온 나라 인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축복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아래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찬 진군길을 걸어가자는 우리 청년들에게 아낌없는 축하를 보내고있는것이다.

혁명의 해를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원수님과 말을 끼고 어깨를 걸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이 나리의 청년들이여, 그대들은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고 인생의 가장 귀중한 청춘시절을 보내는 특권을 받아안은 시대의 행운아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얼마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면 우리는 한상의 사진문헌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축주선수들과 함께 계시는 사진 문헌이 있었다.

그날의 사연을 전하는 강사 리수향동무의 목소리도 격정에 젖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혁명을 같이할 젊은 주력부대, 우리 청년대오가 끝까지 살아남아 줄것입니다.》

지난해 7월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4.25리과 해볼림사이의 남자축주경기기를 보시였다.

이날의 경기기는 매우 치열하면서도 불만 없었다.

적지 않은 시간에 걸쳐 진행된 경기를 마지막까지 다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수속인 해볼림선수들이 경기를 특별히 잘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신 다음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긴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기 위하여 흡수 경기장으로 나가시였다.

자기들의 경기를 보아주시는것만도 비길데 없는 영광과 행복인데 경애하는 원수님과 말을 끼고 어깨를 걸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이 나리의 청년들이여, 그대들은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고 인생의 가장 귀중한 청춘시절을 보내는 특권을 받아안은 시대의 행운아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배풀어주신 사랑과 믿음을 안고 보초보해볼림상체육경기대회 1급남자축주경기에서 1등한 성과와 온 나라 청년들의 한결같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그에게 삼가 올린 선수들과 감독들, 이들이 올린 편지를 보시고 나라의 축구열풍을 일으키는데서 꺼지지 않는 화불이 될것을 바라는 크나큰 기대와 믿음이 담긴 친필을 보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꺼지지 않는 화불! 청년동맹원들의 뇌리에 그 뜻이 천만군의 무기로 안겨왔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청년중시사상의 빛나는 계승이었다. 자그마한 성과도 청년전위들이 거둔것이라면 더없이 기뻐하시며 무엇이든 하나라도 더 위해주시며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와 장군님께서서 펼치시던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그대였다.

혁명의 해를 불을 청년들에게 안겨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없는 의지가 글마다에 빛나고있었다.

그날의 친필에서 받아안은 가슴 벅찬 흥분이 되살아나 얼굴을 붉게 물들여있는 청년동맹원군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자신께서 여려번 강조하였지만 당의 부름에 화답하는 청년들의 기세가 높아온 나라가 들끓고 우리 혁명이 더욱 힘차게 전진할 수 있다는 믿음을 또다시 안겨주시였다.

우리 청년들을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총진군대로의 최후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대로 청년동맹원군들의 심정은 하나로 고통했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하는 길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화불이 되리라는 신념이었다.

꺼지지 않는 화불이 되라!

# 경애하는 원수님께 완공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드릴 그날을 향하여

### 북부철길청년돌격대원들 개건보수총공사량의 80%이상 수행, 모든 대상공사 마감단계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장에 청년돌격대원들이 자랑스럽게 휘날린 그때로부터 어느덧 3년이 흘렀다.

당의 부름을 피뎌는 심정에 새겨안고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여기 북방의 대고적격장으로 한달음에 달려온 우리의 미더운 청년돌격대원들은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며 이 길지 않은 3년동안에 자랑할만 한 로력적성과를 이룩하였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는 북부철길청년돌격대원들은 이미 개건보수총공사량의 80%이상을 수행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모든 대상공사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내밀고있다.

당의 부름이라면 물과 불속에 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청년돌격대원들의 불굴의 투쟁으로 하여

수백리 북부철길 전구간의 면목이 완전히 일신되고 철차의 무사고정시운행에 이바지할수 있는 확고한 물질기술적담보가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강성국가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구들에서 새로운 조국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조국과 혁명을 빛내이고 시대를 떠치는 청년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 연합지휘부의 일군들과 각 도와 성, 중앙기관련단의 전체 돌격대원들은 엄혹한 자연의 광란도, 막아서는 온갖 테러와 난관도 청춘의 역센 투지와 용맹으로 뚫고헤치며 실로 많은 일을 해제했다.

청년돌격대원들은 착공의 첫 삽을 박은 때로부터 현재까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불꽃튀는

전투를 벌여 이미 공사의 기본 파제인 수심개소의 차콜보공사와 수백리 철길로반의 기술상태를 현저히 개선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자랑찬 성과는 청년들을 총진군대로의 척후대로 내세워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 안고 신약같이 떨쳐나선 북부철길청년돌격대원들의 헌신적투쟁의 고귀한 결실이며 젊음으로 약동하는 오늘날의 시대를 빛내이는 자랑찬 위훈의 서사시로 된다.

지금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 연합지휘부의 일군들과 각 도와 성, 중앙기관련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은 개건보수공사를 올케안으로 기어 이 완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자랑찬 승리의 보고, 총성의

보고를 드릴 불타는 열념안고 모든 대상공사장에서 총공격을 벌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 진행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공사를 다그쳐 끝내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연합지휘부의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하루빨리 다그쳐 끝내기 위한 통이 큰 목표를 내세우고 전반적공사에서 선후차를 올케 관철하여 각 려단들의 비상히 앙양된 열의에 맞게 연합지휘부의 일군들은 세멘트, 철근을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자재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혁명적으로 전

개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세멘트생산에 필요한 석탄보장대책을 앞세우고 캐년 석탄을 지체없이 세멘트공장 수송하도록 하는 한편 생산된 세멘트를 각 려단에 보내주기 위한 전투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또한 공사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여주기 위한 사업도 예견있게 내일이 전반적인 대상공사가 일정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고있다.

지금 수백리 철길개건보수공사장은 그야말로 비약과 혁신의 불도가나마냥 끓어번지고있다.

각 려단의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완공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드릴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올 불같은 열의에 넘쳐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물리고나가며 많은 공사파괴수행에서 편일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이미 철길로반기술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자갈, 침목생산 전투와 구조물보수 및 건설공사에서 모범을 보인 평양시, 황해남도, 함경남도, 량강도리 단들의 전투원들이 사회주의경쟁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기세 좋게 전진하고있다. 차콜과 부공사, 용벽쌓기 및 보수공사에서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자랑할만 한 성과를 거둔 함경북도, 평안북도, 자강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남포시려단들과 성, 중앙기관련단의 청년돌격대원들도 승리의 신심드높이 총돌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공사장마다에서 청년돌격대원들의 정진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각 려단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차콜보공사, 용벽공사,

철다리로보공사 등이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철길주변의 역사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보다 훌륭히 꾸러지고있다.

북방의 높고 험한 산밭들에 《조선청년절전곡》의 우렁찬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있으며 그 어느 려단의 전투장을 찾아가보아도 강성국가건설의 영웅들은 돌격대, 당당한 주인공들인 청춘들의 희열과 광만에 넘친 생활이 아름답게 꽃피고있다.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짱을 지니고 청년전위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며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청년돌격대원들의 드높은 애국적열의와 헌신적투쟁에 의해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완공의 날이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다.

글 특파기자 동 세 웅 사진 본사기자 리 진 명



선군청년전위의 기상을 높이 떨쳐갈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다.

그 어떤 사래에도 끄떡없게 응벽쌓기를 질적으로

산악도 락을 기리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장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이

늘어나는 혁신자대렬

# 신념은 혁명가의 진가를 가르는 시금석이다

## 혁명의 대는 불굴의 정신력으로 이어진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안고 혁명을 위하리라면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신념의 강자들이 대우를 이루고있다.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이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고립압살책동을 파국히 물리치며 세기와 세대를 이어가며 자기의 역사에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신념의 강자들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어있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신념은 한번 섰던 혁명의 길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까지 가는 혁명가의 굳센 의지이며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변하지 않는 지조이며 고집한 의지이다.》

우리의 눈앞에 선 어려움과 자기 령도자의 위대한 사상에 매혹되어 그의 뜻을 실현하는 길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혁명가의 절개를 지켜서온 김철, 최창익, 최희숙, 마동희동지들을 비롯한 혁명투사들의 불굴의 그 모습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혁명적신념의 귀감을 함양혁명투사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함양혁명투사들은 모두 오직 하나 민족의 위대한 대양 김정일동지 대한 일념만다.

다시는 살아숨쉬지 못할지언정 혁명의 길로 이끌고주신 혁명가로 키워주신 그이에 대한 의미만은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믿음을 신념으로 간직한 사람들이였다.

가련했던 조국해방전쟁의 나날 우리 인민은 배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보람찬 삶을 안겨주시신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살며 투쟁하였다.

포화 속을 뚫고 오신 아버지수령님께 전쟁만 이기면 복구건설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큰 힘을 드린 심포함, 캄캄한 밤 전쟁의 관리통에 김일성장군은 왜 찾아가는가고 물으시는 수령님께 김일성장군을 찾아가야 살길이 열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박동진...  
당의 품속에서 오늘도 영생의 삶을 누리는 조국혁명! 한 시의 구절구절이 우리의 귀전에 울려온다.

우리 장군님의 그 수훈속엔 다 있이라...  
연약한 녀성의 몸으로 원수들에게 쌀알 한알 넘겨 주지 않은 조선의 평범한 녀인 조국희...  
우리 인민은 전후복구건설시기에도, 사회주의건설시기에도 그렇게 삶을 이어왔다.

뺨쳐산의 아들인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사상과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며 우리 인민을 신념의 강자로 여세게 키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김정일동지만큼 신념이 강한 인강은 도를 깨고도, 나는 조선혁명을 도배동안 령도하여 오면서 김정일동지만큼 신념이 강한 인강은 처음 보았다고, 하늘이 무너져도 그의 신념은 끄떡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일성장군대학 졸업생인 한 통일애국투사는 이렇게 추억하였다.

《내가 졸업론문을 준비하던 1961년 4월 어느날 우리는 장길부녀사가 마동희동지를 피상하여 한 말을 록음으로 들었다. 위대한 김일성장군께서는 이날 학생들과의 담화에서 항일혁명투사들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세시하신 혁명론과 명령지시를 어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였다고 하시면서 마동희, 최희숙, 권영벽동지들을 비롯한 수많은 항일혁명투사들의 마지막 순간에 왜 이런 말을 하였는지 물었다. 그때 장군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내가 서글부러서서서 되새기게 될까 싶었다. 그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신념과 의지의 확신으로 내세워주시신 리인모 동지의 삶을 누리고있는것이 아닐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신념과 의지, 배짱은 말로써가 아니라 당의 선군사상과 선군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실천활동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말 어느날 새 탄발을 벌려나가던 김진청년들격대원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신념과 의지, 배짱은 말로써가 아니라 당의 선군사상과 선군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실천활동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말 어느날 새 탄발을 벌려나가던 김진청년들격대원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신념과 의지, 배짱은 말로써가 아니라 당의 선군사상과 선군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실천활동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말 어느날 새 탄발을 벌려나가던 김진청년들격대원은

결사관철, 이것은 우리의 신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신념과 의지, 배짱은 말로써가 아니라 당의 선군사상과 선군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실천활동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말 어느날 새 탄발을 벌려나가던 김진청년들격대원은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 동원된 평안남도려단 성천군대대 3중대 전투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신념과 의지, 배짱은 말로써가 아니라 당의 선군사상과 선군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실천활동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말 어느날 새 탄발을 벌려나가던 김진청년들격대원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신념과 의지, 배짱은 말로써가 아니라 당의 선군사상과 선군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실천활동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말 어느날 새 탄발을 벌려나가던 김진청년들격대원은

오늘도 주작봉마루로는 혁명의 계승자들의 대오가 끊이지 않고있다.

손에손에 꽃송이와 꽃다발을 안고 승천한 마음으로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는 인민군관들과 청년대학생들, 군로자들과 소년단원들...

투사들의 반신상앞에 정히 놓곤 한다는 박일권학생의 소행은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대한 참관과 관리사업을 진흥화해

집을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올려 기쁨을 드릴수 있었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토록 높이 우러러모시기 위한 사업에서도 앞장설수 있었던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신념과 의지, 배짱은 말로써가 아니라 당의 선군사상과 선군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실천활동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말 어느날 새 탄발을 벌려나가던 김진청년들격대원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신념과 의지, 배짱은 말로써가 아니라 당의 선군사상과 선군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실천활동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말 어느날 새 탄발을 벌려나가던 김진청년들격대원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신념과 의지, 배짱은 말로써가 아니라 당의 선군사상과 선군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실천활동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말 어느날 새 탄발을 벌려나가던 김진청년들격대원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신념과 의지, 배짱은 말로써가 아니라 당의 선군사상과 선군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실천활동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말 어느날 새 탄발을 벌려나가던 김진청년들격대원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신념과 의지, 배짱은 말로써가 아니라 당의 선군사상과 선군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실천활동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말 어느날 새 탄발을 벌려나가던 김진청년들격대원은

## 투사들의 빛을 깊이 새기고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반신상앞에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그들의 심장마다에 맥박치고있는것은 과연 무엇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항일의 혁명선열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혁명의 가시불멸길을 헤치며 피와 땀으로 만고의 항쟁사를 창조하였는데 그들이 지녔던 수렴결심사용위정신, 백혈불굴의 혁명정신은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심장속에도 그대로 맥박치고있습니다.》

우리와 만난 중구역 튜브초급중학교 3학년 3반 학생 박일권은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에 오를 때마다 나는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숭고한 혁명정신을 더욱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뜻깊은 명절마다 가정에서 마련한 꽃다발을 안고 찾아와

나가고있는 락방구역 총성소 학교 교직원, 학생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인가.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은 날 이른 학교의 교직원, 학생들은 스승과 꽃다발과 관리도구를 마련해가지고 주작봉마루로 오르려 한다.

세월처럼 반짝이는 학생들의 맑은 눈동자마다에서 우리는 투사들의 혁명정신을 피출처럼 간직하고 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해나가는 이들의 불같은 마음을 안아본다.

비록 나이는 어려도 가슴마다에는 항일혁명선열들이 지녔던 숭고한 혁명정신을 대를 이어 꽃같이 이어갈 불타는 맹세가 가슴에 새겨져 있다.

언제나 항일혁명선열들의 빛을 심장깊이 간직하였기에 이들은 지난 기간 부강조국의 주인공으로 여세게 자라나는 자기들의 심정을 담은 글자들

어찌 이룰뿐이라.

주작봉마루에 올라 수도 정양의 아들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열들의 뜻을 이어 주제의 내 조국을 온 세상에

언제나 항일혁명선열처럼! 이것이 어제도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우리 세대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본사기자 홍성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신념과 의지, 배짱은 말로써가 아니라 당의 선군사상과 선군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실천활동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말 어느날 새 탄발을 벌려나가던 김진청년들격대원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신념과 의지, 배짱은 말로써가 아니라 당의 선군사상과 선군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실천활동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말 어느날 새 탄발을 벌려나가던 김진청년들격대원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신념과 의지, 배짱은 말로써가 아니라 당의 선군사상과 선군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실천활동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말 어느날 새 탄발을 벌려나가던 김진청년들격대원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신념과 의지, 배짱은 말로써가 아니라 당의 선군사상과 선군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실천활동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말 어느날 새 탄발을 벌려나가던 김진청년들격대원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신념과 의지, 배짱은 말로써가 아니라 당의 선군사상과 선군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실천활동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말 어느날 새 탄발을 벌려나가던 김진청년들격대원은

## 청년 중앙 예술선전대 공연

### 《래양을 따르는 청춘의 노래》 진행

혁명투사 《조선의 별》, 경음악 불후의 고전격인 《001에 개시된니가》, 그리고 《장군님》, 《조선청년행진곡》, 흥성중창 《당중앙을 중심으로 사수하자》, 대화시와 노래 《금방식》, 국악이 《500년의 신념》, 어은금독주 《들과하라 최철단을》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혁명영도의 전기간

독창적인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를 펼치시며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문제를 완전결렬하게 해결하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경조높이 칭송하였다.

김정일대원수님의 심정의 피를 풀이며 휘황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선군시대 청춘들의 열정과 기백이 넘치는 공연종목

들을 보며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강령국가건설을 위한 대고조진군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것을 감회깊이 되새겨보았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따라 걸어온 혁명의 찬란한 길들을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끝까지 힘차게 달려갈 청년전위들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남상4중창과 방창 《인민의 환희》, 남상중창 《우리는 총장을 더욱 잘 모신다》, 녀성 2중창 《승리는 대를 이어》 등의 노래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소합창 《총장의 환길로 가고 가리라》, 《대상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우리는 당신앙에 모른다》로 끝난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청년동맹일군들과 관계 부부 일군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 청년절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 각지에서 진행

청년절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당장간기념날, 평양체육관, 개신문화관을 비롯한 수도의 무도회장은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를 펼치시며 우리 청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정치적 후비대, 혁명의 계승자들의 대부대로 여세게 키워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모은 청년학생들로 환희로 끓어오르는 무도회장들에 《청년절원무곡》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자 참가자들은 경축의 춤바다를 펼쳤다. 청년들을 위훈의 창조자,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주고 내세워 주신 아버지장군대에 대한 헌원은 그리움을 안고 참가자들은

《조선의 메아리》, 《인민의 축원을 받으시라》 등의 노래에 맞추어 춤출것을 일으켰다.

《당을 따라 펼쳐진 나도 살리》, 《당을 따라 청춘들이 울려 퍼지는 속》에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무도회참가자들의 열광마대에 당의 믿음과 기대를 심장에 새기고 강령국가건설전역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펼쳐지는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 있었다.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이어 선군조선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갈 청년전위들의 신념의 불출연양 《7.27행진곡》, 《전선행렬지》, 《승리는 대를 이어》 등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무도회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인민의 축원을 받으시라》 등의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는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을 대를 이어 수렴결심, 대양복을 누려가는 끝없는 영광과 행복에 넘쳐 있었다.

이날 각 도소재지들과 시, 군들에서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있었다.

무도회들은 주제의 청년운동발전에 쌓아올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천후만대 길이 빛내어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의 명도따라 언제나 끝까지 힘차게 나아가려는 청년들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준비사업 마감단계에서 추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기자와 대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손광호는 28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기자와의 대담에서 우리 선수단의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준비사업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19일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남조선의 인천에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가 진행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번 경기대회에는 45개 나라와 지역의 선수들이 참가하게 된다. 우리는 북남관계가 악화된 정세속에서도 평화와 친선을 지향하는 올림픽리념에 맞게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경기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그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있다고 했다.

우리가 경기대회에 큰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한데는 비록 북남사이의 관계가 긴장하고 대결이 첨예하지만 이번 대회가 북남관계 개선하고 불신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계기로 바라면서 그 준비를 마치고 나서 되게 하려는데 있다.

나리의 체육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제17차

독, 심판관 등 필요요인 보장성원들을 파견하게 되며 남녀축구, 수영(수중체조, 수구, 물에뛰기), 육상(조정, 사격, 역기, 기계체조, 활쏘기, 권투, 레스링, 탁구, 카누, 마라톤, 가라데)와 같은 14개 종목에 출전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우리는 올림픽정신에 맞게 아시아경기대회 규정과 판례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에도 적극 참가하고있다.

얼마전 인천에서 진행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후철시와 국제체육학술토론회에 우리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국제체육학술 토론회에 참가하여 우리 당의 체육중시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널리 소개선전하였으며 여러 나라들과의 체육교류와 관련한 문제들도 심도있게 토의하였다.

29개 팀이 참가하는 나리축구는 중국, 파키스탄과, 11개 팀이 참가하는 나리축구는 벨라루스, 중국 홍콩과 한중에서 예선경기를 하게 된다.

우리 선수들은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의 요구를 철저히 훈련시켜 훈련에서 더 많은 점을 흘려 버림으로써 조국을 빛내일 임무를 안고 분초를 아껴가며 훈련하고있다.

우리 선수단이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한다는 소식에 접한 우리는 나라 인민은 경기들마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바라면서 진심어린 성의를 다하여 종목별 훈련장들에 찾아와 선수들을 적극 고무해주고있다.

우리 선수단의 아시아경기대회 참가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이 기간에 박차를 가하여 경기대회참가와 관련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완료하고 경기장마다에서 더 많은 금메달을 정취하여 우리 공화국을 창공에 높이 휘날리겠다.

그는 응원단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는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들을 응

원하고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큰 규모의 응원단을 내보내기로 하였다.

그런데 남측은 우리 응원단이 나가는데 대해 《대남정치공작대》니, 《남남갈등조정》이니 뭐니 하면서 로골적으로 헐뜯고 비난하다 못해 지난 7월에 진행된 북남실무회담에 나와 응원단규모와 우리 공화국의 규정문제를 시비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일방에 꺼내지도 않은 비유문제를 꺼내면서 회담을 결렬시켰다.

남측이 우리 응원단이 나오는 것을 우려하면서 바라지 않는 조건에서 우리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응원단을 내보내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서는 이미 지난 8월 20일부터 인천에서 진행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추진식과 국제체육학술토론회에 참가한 우리 대표단이 경기대회조직위원회 관계자들과 남측당국관계자들에게 통지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침략세력의 전쟁책동을 짓부셔버리자

## 정례적인 군사적 대응은 자위적 조치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고 《맞춤형억제전략》의 실천적용을 로골적으로 선언한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이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적들의 무분별한 침략책동을 격파분쇄하기 위한 우리 혁명무력의 군사적보복대응을 정책적으로, 단계적으로 더욱 강도높게 벌여지게 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괴뢰합동참모본부의 호전파들은 《연세적응론에 대한 무력도발위협》이니, 그 무슨 《유감》이니 하면서 《유감》 나발을 또다시 불어댔다. 이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뜨는 격이고 속대에 매달린 민중이 가 똥수없이 권들거리는 식이다.

우리의 정례적인 군사적보복대응은 가중되는 내외호전파들의 핵전쟁위협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조치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외국에 처한 북남관계 개선을 위하여 우리 공화국은 시종일관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년초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중대제안과 특별제안, 정부성명,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등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긴장상태의 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편이 제시하였다. 특히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권위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북핵 적대적대처상태의 해소를 위하여 한국과 남조선의 가장 예민한 최전방접점지역에서의 군사적실천조치들도 일방적으로

로 취하는 과감한 결단과 야광도 보여주었다. 우리의 인내성있는 노력은 내외 각계의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찬동을 불러일으켰으며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의 증지로 그에 화답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갔다.

그러나 미국과 그에 추종한 남조선호전세력들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평화에 호적노력에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의 강행으로 도전해나갔다. 이번에도 호전파들은 내외의 강력한 반대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았다.

일방의 위협은 타방의 대응을 초래하며 모험적인 《텔 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으로 정세를 초진장상태로 몰아갔을 때에도 우리는 준전시상태선언으로 핵무기전과방직조작에서의 탈퇴선언으로 분별없이 헤엄치는 적들에게 다시한번 뒤통을 안기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자위적책무력건설을 위한 우리의 결정을 가로막으려고 경제제재와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있지만 우리는 적대세력의 도전을 물리치며 3차에 걸치는 성공적인 핵시험을 단행함으로써 앞으로는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강력한 핵보유국으로 온 세상에 위용을 떨치고있다.

적들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벌이면서 감히 《맞춤형억제전략》을 실천에 옮기려고 발악하고 있는 지금 핵에는 핵으로, 미사일에에는 미사일로 적들의 군사적도발소동을 무자비하게 짓부시고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철저히 수호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진념과 의지는 더욱 억세어지고있다.

우리들의 정례적인 군사적보복대응은 내외호전파들의 북침책정야망이 종식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선제적으로 취해지는 가장 적극적인 물리적공세이다.

조선반도에서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의 핵전쟁도발소동은 반세기 가 넘도록 지속되고있다. 그로 하여 우리 민족이 당하는 정신적, 물질적피해와 고통은 헤아릴수 없다. 날로 심화되는 적대세력의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을 끝장내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여 할성스러운 임무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어깨에 지워져있다.

핵시험정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면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초진장상태를 몰아오는 미국과 괴뢰호전파들의 망동을 그대로 내버려두었다면 그 후과는 실로 엄중할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외세와 그 주구들의 범죄적인 핵전쟁위협소동을 결코 보고만 있을수 없으며 이제는 그것을 단연코 끝장내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다. 미국과 괴뢰호전파들이 전쟁연습을 《정례화》, 《연례화》 하는것은 보다 복잡한 대가를 치러야 할것을 로골적으로 선언한 이상 우리 혁명무력은 보다 강력한 군사적보복대응에 주저없이 나서게 될것이다.

우리의 선의와 야망이 담긴 모든 평화적합의와 제안에 극도로 위협한 전쟁연습으로 대답하신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것이다. 우리의 강력한 군사적대응은 그 누구도 예측할수 없는 보다 높은 단계에서 줄기차게 취해지게 될것이다.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은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다.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이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적들의 무분별한 침략책동을 격파분쇄하기 위한 우리 혁명무력의 군사적보복대응을 정책적으로, 단계적으로 더욱 강도높게 벌여지게 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괴뢰합동참모본부의 호전파들은 《연세적응론에 대한 무력도발위협》이니, 그 무슨 《유감》이니 하면서 《유감》 나발을 또다시 불어댔다. 이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뜨는 격이고 속대에 매달린 민중이 가 똥수없이 권들거리는 식이다.

우리의 정례적인 군사적보복대응은 가중되는 내외호전파들의 핵전쟁위협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조치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외국에 처한 북남관계 개선을 위하여 우리 공화국은 시종일관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년초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중대제안과 특별제안, 정부성명,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등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긴장상태의 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편이 제시하였다. 특히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권위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북핵 적대적대처상태의 해소를 위하여 한국과 남조선의 가장 예민한 최전방접점지역에서의 군사적실천조치들도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은 전쟁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위대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침략세력의 전쟁책동을 짓부셔버리자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은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다.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이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적들의 무분별한 침략책동을 격파분쇄하기 위한 우리 혁명무력의 군사적보복대응을 정책적으로, 단계적으로 더욱 강도높게 벌여지게 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괴뢰합동참모본부의 호전파들은 《연세적응론에 대한 무력도발위협》이니, 그 무슨 《유감》이니 하면서 《유감》 나발을 또다시 불어댔다. 이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뜨는 격이고 속대에 매달린 민중이 가 똥수없이 권들거리는 식이다.

우리의 정례적인 군사적보복대응은 가중되는 내외호전파들의 핵전쟁위협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조치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외국에 처한 북남관계 개선을 위하여 우리 공화국은 시종일관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년초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중대제안과 특별제안, 정부성명,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등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긴장상태의 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편이 제시하였다. 특히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권위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북핵 적대적대처상태의 해소를 위하여 한국과 남조선의 가장 예민한 최전방접점지역에서의 군사적실천조치들도 일방적으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고 《맞춤형억제전략》의 실천적용을 로골적으로 선언한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이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적들의 무분별한 침략책동을 격파분쇄하기 위한 우리 혁명무력의 군사적보복대응을 정책적으로, 단계적으로 더욱 강도높게 벌여지게 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괴뢰합동참모본부의 호전파들은 《연세적응론에 대한 무력도발위협》이니, 그 무슨 《유감》이니 하면서 《유감》 나발을 또다시 불어댔다. 이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뜨는 격이고 속대에 매달린 민중이 가 똥수없이 권들거리는 식이다.

우리의 정례적인 군사적보복대응은 가중되는 내외호전파들의 핵전쟁위협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조치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외국에 처한 북남관계 개선을 위하여 우리 공화국은 시종일관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년초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중대제안과 특별제안, 정부성명,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등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긴장상태의 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편이 제시하였다. 특히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권위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북핵 적대적대처상태의 해소를 위하여 한국과 남조선의 가장 예민한 최전방접점지역에서의 군사적실천조치들도 일방적으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고 《맞춤형억제전략》의 실천적용을 로골적으로 선언한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이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적들의 무분별한 침략책동을 격파분쇄하기 위한 우리 혁명무력의 군사적보복대응을 정책적으로, 단계적으로 더욱 강도높게 벌여지게 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였다.

##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 규탄

로씨야 단체 성명 발표

로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개선과 미제와 남조선피괴당국이 벌이는 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1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아시아지역 모든 나라 인민들의 리해관계에 부합한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보수세력은 《연세적》이라는 명목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침략전쟁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고 조선반도에 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자기 장기관의 쏠춤을 여기면서 남조선과 아합하여 북침전쟁을 일으키려고 끊임없이 책동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

공화국은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소탕할수 있는 충분한 위력을 가지고있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하며 자기의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보위할것이다.

우리는 만일 미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침략전쟁을 일으킨다면 김정은장군의 현명한 평도를 받는 영웅적조선인민군과 인민이 일방백전으로 싸워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확신한다.

고 하면서 이를 즉시 중지할것을 요구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 하였다.

미국이 이번 군사연습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방어적》이라고 주장하고있지만 철두철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목적으로서 결코 용납할수 없는 폭거이다.

미국과 남조선은 올해에 들어와 여러차례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연습에서 핵실험태격을 골라주한 《맞춤형억제전략》을 처음으로 공식 적용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미국과 남조선이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위기를 몰아오고 군사적결락과 핵공갈로 이 지역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고 70년대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은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거듭 강행해왔다.

군사적도발을 계속해오는것은 누구이며 평화의 파괴자가 누구인가 하는것은 명백하다.

우리는 위협천만한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

【조선중앙통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중요한 부분은 괴뢰군과 행정기관, 민간의 북침전쟁준비상태를 구체적으로 점검, 개선 《맞춤형억제전략》을 하고있는 전시대비실천연습인 《을지》 연습이다.

이 연습이 강화될 때마다 괴뢰당국은 《을지 안전보장회의》, 《을지 국무회의》 등을 소집하고 《철저한 준비》니, 《전시대비태세점검》이니 하고 부산을 피우곤 하였다. 호전파들은 괴뢰정부가관들과 수시만에 달하는 민간인들을 전쟁대비태세에 돌입시킨 상태에 전면전쟁의 공격을 시작하고 있다. 호전파들은 괴뢰정부가관들과 수시만에 달하는 민간인들을 전쟁대비태세에 돌입시킨 상태에 전면전쟁의 공격을 시작하고 있다. 호전파들은 괴뢰정부가관들과 수시만에 달하는 민간인들을 전쟁대비태세에 돌입시킨 상태에 전면전쟁의 공격을 시작하고 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주요 부분은 괴뢰군과 행정기관, 민간의 북침전쟁준비상태를 구체적으로 점검, 개선 《맞춤형억제전략》을 하고있는 전시대비실천연습인 《을지》 연습이다.

이 연습이 강화될 때마다 괴뢰당국은 《을지 안전보장회의》, 《을지 국무회의》 등을 소집하고 《철저한 준비》니, 《전시대비태세점검》이니 하고 부산을 피우곤 하였다. 호전파들은 괴뢰정부가관들과 수시만에 달하는 민간인들을 전쟁대비태세에 돌입시킨 상태에 전면전쟁의 공격을 시작하고 있다. 호전파들은 괴뢰정부가관들과 수시만에 달하는 민간인들을 전쟁대비태세에 돌입시킨 상태에 전면전쟁의 공격을 시작하고 있다.

## 불장난 소동에서 달리는 민간인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주요 부분은 괴뢰군과 행정기관, 민간의 북침전쟁준비상태를 구체적으로 점검, 개선 《맞춤형억제전략》을 하고있는 전시대비실천연습인 《을지》 연습이다.

이 연습이 강화될 때마다 괴뢰당국은 《을지 안전보장회의》, 《을지 국무회의》 등을 소집하고 《철저한 준비》니, 《전시대비태세점검》이니 하고 부산을 피우곤 하였다. 호전파들은 괴뢰정부가관들과 수시만에 달하는 민간인들을 전쟁대비태세에 돌입시킨 상태에 전면전쟁의 공격을 시작하고 있다. 호전파들은 괴뢰정부가관들과 수시만에 달하는 민간인들을 전쟁대비태세에 돌입시킨 상태에 전면전쟁의 공격을 시작하고 있다.

장훈련 등이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지어 공화국북반부에 썩어빠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무식시킬것을 목적으로 한 그 무슨 《북인성적 및 민중이양적전》 훈련까지 벌어진다.

올해의 《을지》 연습도 다를바 없다. 지난 18일부터 남조선지역에서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 연습이 미명하에 《을지》 연습이 시작되었다. 21일까지 각지에서 실시된 이 전쟁연습에서는 3700여명에 달하는 괴뢰정부가관들과 중점관리지정대상, 48만여명의 민간인들이 전면전쟁에 대비한 각종 훈련들에 내몰려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전 괴뢰안전행정부는 이번 《을지》 연습은 그 누구의 《미사일발사, 무인항공기 침투, 《북방한계선》 기습공격》과 같은 《대안형 형태》

《을지》 연습의 강화는 명백히 북침전쟁도발을 겨냥한것이다. 그것은 괴뢰군부는 물론 행정부와 민간의 전시대비실천연습을 한층 강화하여 북침전쟁도발소비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려는 총력의 발로이다.

《민, 관, 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의 미명하에 벌리는 이 전쟁연습으로 하여 군복을 치르는 것은 민간인들이다. 먹고 살기 위해 반딧으로 뛰어나다며 모자란 편에 전쟁연습까지 내몰려야 하는 수많은 주민들이 괴뢰당국을 저주하며 울분을 터뜨리고있다.

북침전쟁도발에 환장한 괴뢰호전파들에게는 남조선의 민간인들까지 고통을 당하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미국과 괴뢰호전파들의 북침전쟁도발소동을 한결같이 반대배격하고있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을지》 연습의 강화는 명백히 북침전쟁도발을 겨냥한것이다. 그것은 괴뢰군부는 물론 행정부와 민간의 전시대비실천연습을 한층 강화하여 북침전쟁도발소비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려는 총력의 발로이다.

## 조일우호친선협회 고문이 일본체육평화교류협회 리사장일행을 만났다

조일우호친선협회 고문인 강석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28일 일본체육평화교류협회 리사장과 일행을 만나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대화를 하였다.

리사장은 조일우호친선협회 고문인 강석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만나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대화를 하였다.

리사장은 조일우호친선협회 고문인 강석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만나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대화를 하였다.

## 평양국제프로레스링경기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환영 연회

평양국제프로레스링경기대회 참가자들을 위하여 조일우호친선협회와 국제무도경기위원회에서는 28일 옥류관에서 환영연회를 마련하였다.

평양국제프로레스링경기대회 참가자들을 위하여 조일우호친선협회와 국제무도경기위원회에서는 28일 옥류관에서 환영연회를 마련하였다.

평양국제프로레스링경기대회 참가자들을 위하여 조일우호친선협회와 국제무도경기위원회에서는 28일 옥류관에서 환영연회를 마련하였다.

평양국제프로레스링경기대회 참가자들을 위하여 조일우호친선협회와 국제무도경기위원회에서는 28일 옥류관에서 환영연회를 마련하였다.

## 해블컵 축구결승경기 진행

뜻깊은 청년절을 맞으며 해블컵축구결승경기가 28일 양강도 축구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경기장은 당의 명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높이 떨쳐가는 크나큰 긍지를 안고 모여든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근로자들로 차고넘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봉태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김영준체육상,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국가체육지도위원회, 판계부문 일꾼들이 경기를 함께 보았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당의 주체적인 훈련방향을 받들고 사상적, 투지적, 속도적, 기술적인 요소를 철저히 구현하여 리만해는 자기들의 높은 축구기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당의 주체적인 훈련방향을 받들고 사상적, 투지적, 속도적, 기술적인 요소를 철저히 구현하여 리만해는 자기들의 높은 축구기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 평양국제프로레스링경기대회와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 진행

평양국제프로레스링경기대회와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이 28일 평양고려호텔에서 진행되었다.

평양국제프로레스링경기대회와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이 28일 평양고려호텔에서 진행되었다.

평양국제프로레스링경기대회와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이 28일 평양고려호텔에서 진행되었다.



## 전국체신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발표회에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체신의 현대화를 더욱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전문가들을 해결한 180여건의 성과자료들이 제출되었다.

발표회에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체신의 현대화를 더욱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전문가들을 해결한 180여건의 성과자료들이 제출되었다.

발표회에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체신의 현대화를 더욱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전문가들을 해결한 180여건의 성과자료들이 제출되었다.

## 일본체육평화교류협회 리사장일행 도착

일본체육평화교류협회 리사장이 평양국제프로레스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노기 간지 일본체육평화교류협회 리사장과 일행이 2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일본체육평화교류협회 리사장이 평양국제프로레스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노기 간지 일본체육평화교류협회 리사장과 일행이 2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일본체육평화교류협회 리사장이 평양국제프로레스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노기 간지 일본체육평화교류협회 리사장과 일행이 2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일본체육평화교류협회 리사장이 평양국제프로레스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노기 간지 일본체육평화교류협회 리사장과 일행이 2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 로씨야방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임명

로씨야방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임명되었다.

로씨야방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임명되었다.

로씨야방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임명되었다.

## 일본체육평화교류협회 리사장일행 도착

일본체육평화교류협회 리사장이 평양국제프로레스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노기 간지 일본체육평화교류협회 리사장과 일행이 2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일본체육평화교류협회 리사장이 평양국제프로레스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노기 간지 일본체육평화교류협회 리사장과 일행이 2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일본체육평화교류협회 리사장이 평양국제프로레스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노기 간지 일본체육평화교류협회 리사장과 일행이 2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일본체육평화교류협회 리사장이 평양국제프로레스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노기 간지 일본체육평화교류협회 리사장과 일행이 2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